

취업 성공 스토리

## 농촌진흥청

정재희 / 바이오에너지공학과

**합격기업** 농촌진흥청/농업연구사

**기본스펙** 학점 : 3.0 / 토익 : 725점

### 대학생활

**인턴** 없음

**현장실습**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8주)

**공모전** 더데이비포 공모전 우수상 수상  
고독한 대학가 미식가 대상 수상  
카피킬러 공모전 우수상 수상

**봉사활동** 전남대학교 해외 자원봉사활동 레소토(4주)

**아르바이트** 학과 교수님 실험실 보조 아르바이트(11개월)

**기타** 전남대학교 영상제작동아리 '청불'

### 자격증

**전공** 식물보호기사

**일반**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ITQ 정보기술자격

## 대학생활 스토리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생물과 화학이었다. 그때 막연히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미래의 신재생에너지기술이라고 평가받는 바이오에너지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에 관해 연구하고 싶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생 1학년에 느낀 자유는 너무 달콤했고 공부는 뒷전에 두고 노는 것과 활동에 관심이 더 많았다. 대학생 1학년 때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레소토로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내 한계를 시험해 보겠다며 마라톤을 뛰어보는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그때 가지게 된 꿈은 영화감독이었다. 군 복무 후 영화제작을 하고 싶다는 꿈은 더욱 강렬해졌고 영상제작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을 하며 직접 단편영화를 찍어보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에 들어가기 위해 시나리오 공부를 하였었다. 대학교 2, 3학년 때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지게 되었고 단편영화를 찍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 공모전에도 나갔지만 떨어지게 되었다. 낙심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었다. 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해를 노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와중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8주 동안 다녀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에서의 현장실습이었다.

사실 학교 수업인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실험실에 들어가는 대신에 농촌진흥청 현장실습을 택하게 되었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게 된 것이다. 8주 동안 한 현장실습은 내 꿈의 변화를 가져왔다. 오래전 생각했던 연구자의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장실습 동안 실험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실험에 관한 공부도 재미가 있었다.

현장실습을 마치고 4학년 1학기 원래 계획했던 것과 180도 달라지었다.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4학년 전공 수업부터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농업연구사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니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식물보호기사와 종자기사를 공부하기 위해 매일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처음엔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지만 우선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자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부를 하며 나에게 맞는 공부방법도 찾아보았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식물보호기사는 취득했지만, 종자기사는 필기만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떨어진 실패를 분석하여 농업연구사 공부를 할 때 참고하고자 하였다.

2020년 코로나 시대로 인해 졸업식도 하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이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후 계획했던 대로 농업연구사 시험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2021년 농촌진흥청 시험에 합격하여 농업연구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 입사지원경험

1. 지원회사 : 농촌진흥청
2. 지원직무 : 농업연구사
3. 필기시험 후기

농촌진흥청은 2022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 능력검정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어, 분자생물학, 작물생리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5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한국사 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난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후로 공부한 경험이 없어 애를 먹었지만, 공무원 국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였습니다. 전공과목의 경우 분자생물학과 작물생리학은 전공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자생물학의 경우 2021년부터 신설된 과목이기 때문에 시중에 문제집이 없습니다. 저는 왓슨 분자생물학을 토대로 공부하였고 추가로 PEET 분자생물학 교재를 구매해 공부하였습니다. 재배학과 분자생물학은 시중에 파는 문제집과 향문사책을 보며 공부하였고, 실험통계학은 방통대, 향문사, 부민사 실험통계학책을 모두 보며 공부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시험은 비공개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시중에 파는 다른 직렬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타인에게 구하는 문제를 푸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본서 회독입니다. 기본서에 나오는 이론이 탄탄해야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학수업 분자생물학, 작물생리학, 재배학, 생물통계학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시험은 매년 4월에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4. 면접 후기

면접은 항상 농촌진흥청 본청인 전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전날에 전주에서 하룻밤을 자고 면접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농촌진흥청 면접은 5분 pt 발표와 25~30분 개별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면접자들은 한 강당에서 대기하게 되며 자신의 차례가 호명되면 pt 작성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25분의 시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해 발표할 과제를 수기로 작성하게 됩니다.

2021년은 오전에는 디지털 농업을 향상할 전략과 발전시켜야 할 기술, 오후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25분의 작성이 끝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작물 직렬의 경우 면접관님 3분과 지원자 1명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먼저 5분 동안 자신이 작성한 발표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면접관님께서 발표한 과제에 대한 질문을 5분 정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0분 정도 개별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 -개별면접 질문-

연구직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원자가 생각하는 농촌에 시급한 문제와 해결방안은?

실험 경험이 있는가?

작물 직렬 지원동기는?

지원자가 생각하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야 할 품종은?

##### <면접 준비 시>

우선 면접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면접스터디를 하며 pt 주제를 10개 정도 선정한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pt 주제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를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면접의 경우 우선 농촌진흥청의 미션과 비전, 그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초가사랑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면접 스터디원들과 나올 거 같은 질문에 대해 공유하거나 답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